

총선 D-30 민주 호남권 후보 2~4배수 압축

현역의원 모두 포함... 심사기준 논란

30% 배제 방침과 어긋나 탈락 예비후보 "기준 뭐냐" 최종 후보 14일께 결정

통합민주당이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군을 2~4배수로 압축함에 따라 향후 공천 일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8일과 9일 호남지역 후보군을 2~4배수로 압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광주는 8일 오후 실시됐으며, 전남지역은 9일 저녁이나 10일 중에 여론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축 규모는 후보자가 4인 이하는 2인으로 5~7인 지역은 3인, 8인 이상은 4인으로 압축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과 공심위는 여론조사는 공천 참고자료이라는 입장이지만 별다른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 2~4배 후보군은 9일 통합민주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지역 압축후보군이 드러났다. 우선 1차 압축 후보로 알려진 예비후보는 광주 동구의 경우, 양형일의 원과 박주선 전 의원이 2배수에 선정됐다.

광주 남구는 지병문 의원, 정기남 정동영 대선 후보 공보특보, 이윤정 전 한국전력 KDN 상임 감사,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 등 4배수로 압축됐다.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9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국민심사자문위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절대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호소할 수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고 있다.

서구 갑은 유종필 통합민주당 대변인,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송갑석 정동영 후보 중앙선대위 청년위원장 등 3배수로, 서구 을은 정동제 의원, 김영진 전 의원, 김영룡 전 국방부 차관, 이병화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 등 4배수로 압축됐다.

또, 광산 갑은 김동철 의원과 심재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2배수로, 광산 을은 이용섭 전 건설부장관, 나병식 풀빛미디어 회장, 김승남 구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등 3배수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천일정은 일단 통합민주당이 호남지역 심사를 마무리하고 후보를 2~4배수로 압축한데 이어 수도권 등 경합 지역 공천심사에 나섬에 따라 최종 후보 결정은 오는 14일께 예나 이뤄질 전망이다.

공심위가 심사를 통해 단독으로 후보를 선정할 수 있지만 초경합 지역은 국민여론조사 경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경철 공심위 간사는 9일 브리핑에서 "1차 압축대상 가운데 차이가 현저하면 곧바로 단수 후보로 확정하고 근소한 차이일 경우, 2차 압축을 거쳐, 최종 추천하거나 경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이르면 오는 11일이나 12일께 공심위가 수도권 및 영남권 단독 후보 지역, 호남 등 경합지역 가운데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 공천자 등을 1차로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경합지역은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 이르면 14일, 늦어도 15일께 최종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경선 시기 등은 보안이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지역 현역의원 배제기준 따로 있다”

박경철 민주 공심위 간사



통합민주당 공천 1차 공천자 명단 발표가 계속 연기되는 등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 지연으로 설이 난무하고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 기회가 박탈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는 공천 과정에서의 참고 자료로 알고 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박재승 위원장에 위임한 상황이다. 특히, 호남지역 현역의원의 배제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다.

공천 심사에서 배제되는 호남지역 현역의원 명단이 따로 발표되는 것을 기대한다. 공천 심사에서 배제되는 호남지역 현역의원 명단이 따로 발표되는 것을 기대한다.

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인격적 살인행위이다.

최종 공천 발표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들을 탈락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천에서 탈락된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예 공천 심사에서 배제됐는지 아니면 경쟁 상대가 강해서 공천에서 떨어졌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클린 공천’ 이어가자

민주, 시민 29명 구성 ‘배심원제’ 도입

정당사상 첫 공천 심사 참여

‘공천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클린 공천’ 바람을 이어갈 태세이다.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9일 자체 공모한 시민 29명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자문위원단’으로부터 공천에 대한 견해를 듣고 이를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인들로 꾸려진 사실상의 ‘배심원’ 조직이 공천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자문위원단의 의견이 공천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 변수로 작용하긴 어렵겠지만, 공심위 심사과정에 일정 부분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다.

공심위 홍보간사인 박경철 의원은 “공심위의 심사작업이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중요한

고비에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여부를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승 공심위원장도 이날 심사에 앞서 “국민에게 외닿는 정서,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 후보상(像), 향후 야당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슨 의견이든 들으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공천배제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는 게 공심위측 입장이다.

하지만 자문위원단 제도가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천배제기준 확정과정에서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의 상반된 견해를 ‘단칼’에 쳐낼 정도로 확고한 자기신념을 가지고 있는 공심위가 임팩트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자문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민주당, 脫 DJ·脫 盧?

공천 배제 최측근 인사들 상당수 포함 수도권 표심 염두 해 둔 전략적 포석

통합민주당의 4·9총선 공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색깔을 벗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현재까지 분위기는 김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지고 노 전 대통령의 프레임은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공천 심사 배

제 원칙을 밝히면서 뚜렷해졌다. 11명의 탈락 유력인사들 가운데 공교롭게도 DJ와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다.

김 전 대통령 측으로는 차남인 김홍업 의원과 최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 건 전 국정원장, 설 훈 전 의원,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로는 최측근인 안희정씨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이호웅 전 의원 등이 그 같은 범주에 속한다.

더욱이 호남권 현역의원 가운데 최소한 30%를 탈락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확산하고 있다. 호남권 의원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천 전략은 1차적으로 수도권 표심의 변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나아가 17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문지마 투표’를 통해 대거 국회에 진출한 일명 ‘탄돌이’ 의원들을 비롯해 의정활동에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현역들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신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억울한 희생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대의 요구 차원에서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천의 흐름은 총선 후 민주당의 세력관도를 완전히 바꾸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입김이 약화하면서 손학규 대표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물론 수도권에서는 공천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친노(親盧)와 비노(非盧)를 가릴 것 없이 현역의원이 재공천을 받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정도로는 당의 대세를 바꾸기 힘들 것인 지적이다.

Advertisement for 'Startup School' (창업스쿨) featuring a tree logo and text about entrepreneurship train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KDIT and a list of participating companies.